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중앙 집권적 경제 정책을 채택한 이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는 의료 기기, 의료 시설을 위한 전력, 의사 등 의료 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사망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 통제적 시스템 하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효

올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 구축의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보상, 다른 결과

두 나라 병원의 차이는 각 나라 병원들이 마주하는 보상 시스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보상, 즉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병원을 짓고, 운영하게 하고,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게 만들며, 충분한 양의 의료 기기를 공급하게 한다.

병원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기관은 의사, 간호사, 약사부터 병원을 짓고 관리하는데 종사하는 건설 노동자, 건축가까지 당 기관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 때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희망의 불씨

사람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 장비, 의약품을 도둑질하거나, 물물 교환을 함으로써 구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 물물교환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중앙 집권적인 의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의료 보험의 대체재를 찾도록 만들 것이며, 병원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venezuelas-health-care-system-is-in-shambles-but-markets-are-already-responding/>